



영화 '건국전쟁' 띄우기...해묵은 이념 전쟁, 민주주의 퇴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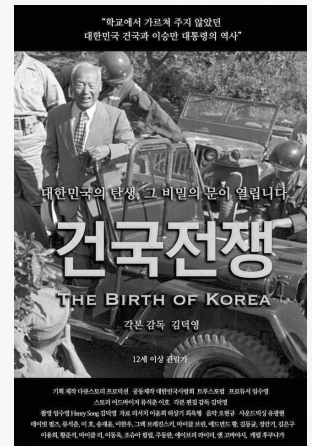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탄핵 1호 대통령, 독재의 대명사 이승만 띄우기에 나섰다.

이승만을 미화한 다큐영화 '건국전쟁'을 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소감을 남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나오던데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승만은 민간인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하고,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 3.15부정선거 저지르고, 정권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등 독재 정권으로 이미 역사의 평가가 끝난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바로 이승만의 3.15부정선거다. 당시 정권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렸고 실제로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쫓겨났다.

이승만정권에 항거했던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다.

영화에는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위원장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강연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이승만의 토지개혁에는 '교육기관 제외'라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이에 많은 친일 지주들이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사학재단을 만들어 농지개혁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토지개혁의 뒷문을 통해 탄생한 사학재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세습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이 정말 민간인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했을까?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더 알고 싶다면?

민주노총 4.3 평화순례에 함께 가요.

- 기간 : 2024. 3. 29 ~ 30 (제주도 일대)

- 신청 : 지부 통일위원회 또는 사업장 담당자





사우디 “브릭스 가입, 혜택 검토 이후 결정 내릴 것”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사우디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브릭스 가입에 따른 혜택을 검토 중”이라면서 “혜택을 평가한 뒤 가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브릭스는 지난해 8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공식 가입을 신청한 40여개국 가운데 △사우디 △이란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6개국을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회원국으로 맞이한다고 밝혔다.

(2024. 1. 18. 뉴스1)

브릭스(BRICS)

2000년대를 전후하여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인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5개국 경제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BRICS는 이들 나라의 영문 국명 첫 글자를 합성하여 만든 것이다.

브릭스가 확대되고 미국의 달러패권이 위협받고, 중국의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브릭스의 경제 규모는 이미 4년 전 G7을 넘어섰다.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 봉쇄전략 추진, 무역갈등을 넘어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와 봉쇄를 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가 신규 회원국이 되어 브릭스 참가국은 11개로 확대되었으나 지난해 말 아르헨티나가 대선 이후 가입을 철회해 브릭스 참가국은 현재 10개이다.

한겨레

미 반도체법 지원 ‘자국 기업 먼저’ ...텍사스에 공장 짓는 삼성은?

기자 이완

미국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 만든 보조금의 첫 대규모 지원 대상으로 자국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를 선정했다. 최근 보조금 협상 난항과 경기 침체 등으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다음 보조금 대상으로 자국의 인텔과 대만 티에스엠시(TSMC), 한국 삼성전자 중 어디를 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2024. 2. 20. 한겨레)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반도체칩과 과학법(반도체법)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약 70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2022년 7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명명된다. 이 법은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 동안 중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두고 있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영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공장들도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에 따라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